

‘재진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진술하다’는 영어로 ‘paraphrase’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 칼럼인데 갑자기 왜 영어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국어에서도 ‘재진술’, 즉 ‘paraphrasing’이 사용됩니다. 재진술이 무엇인데, 어느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느냐 등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볼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먼저 재진술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시다.

- ㉠ A→B.
- ㉡ A'→B'.
- ㉢ A''→B''.

(수학의 미분 기호가 아닙니다.)

㉠, ㉡, ㉢이라는 세 문장이 있고, 이 세 문장은 하나의 문단을 이룬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하나의 문단은 좋은 글, 수험생들 기준으로는 평가원이 쓴 글이 좋은 글이라고 전제합니다. 한편 잘 쓰인 글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굳이 적자면 글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의 글의 모든 문장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수험생한테) 뭘 도움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 우리가 저기 세 문장 중 다른 것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의 문장, ㉠ 문장을 이해했다고 가정해봅시다(시험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지문의 내용을 억지로 이해한다.
2.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3. 재진술한다.

바로 3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단 평가원 지문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으니,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장들이 그 주제에 관련이 있다고 믿어봅시다. 그렇다면 ㉠과 ㉡은 표현이 달라서 서로 동떨어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 ㉡이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이 불완전하게나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문장은 몇 개죠? ㉢,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는 3개의 문장 중 2개의 문장을 몰라서 겁이 났지만, 지금은 ㉠과 ㉡, 2개의 문장을 이해하고 ㉢ 하나만 남았고, 글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 역시도 ㉠과 ㉡을 관통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을 ㉠으로써 이해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나, 그런데’ 와 같이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느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어려운 말로도배 되어 있어 고통 받았던 소재가 주로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봅시다. 대부분 철학이라 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워하던 철학에서 재진술이 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LP 지문’ 같은 것들 말이죠.
*철학으로 분류할 때 참고한 책: ‘홀수 인문, 사회, 예술 편’ 분류

배웠다면 적용을 해보아야겠죠?

우리는 18 9월 LP 지문에 적용해봅시다.

적용하기 전 문제 풀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27~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전 역학에 ㉠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교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진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진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진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진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진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진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진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진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진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LP: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ⁿ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29.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 ②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 ③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 ④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 ⑤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30. 윗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아래의 (ㄱ)~(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ㄱ)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ㄴ)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ㄷ)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ㄹ) 반지름 5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단, (ㄱ)과 (ㄴ)의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고 (ㄷ)과 (ㄹ)의 팽이는 동일한 팽이이다.)

- ①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B는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ㄴ)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A와 B는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④ A는 B와 달리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⑤ B는 A와 달리 (ㄹ)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32.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거(依據)하면 ② ㉡: 인지(認知)하게
- ③ ㉢: 소지(所持)하게 ④ ㉣: 제기(提起)한다
- ⑤ ㉤: 부합(符合)한다

자, LP 지문을 봅시다.

‘=’: 두 개가 진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용상 같은 의미로 쓰임을 말합니다.

‘-’: 지문에 적혀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재진술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 입장이나 3:4와 같이 비율 관계 표시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지문 분석

[1문단]

고전 역학: 물체 크기 관계 X, 초기 운동 상태 정확히 알 → 일정 시간 후 물체 상태 정확히 측정됨 &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 공존 X.

하지만(전환)

양자역학: In 미시세계, 배타적인 상태 공존 O

[2문단]

1. 거시세계 = 반지름 5cm 팽이(이하 ‘5cm’)

5cm: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한 쪽으로 회전 & 관찰 전 이미 결정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로 본다면

5cm(거시세계) =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 공존 X

이와 달리(전환)

미시세계 = 전자만큼 작은 팽이(이하 ‘전자’)

전자: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공존 & 관찰 통해 결정 (= 관찰 전에는 알 수 X)

관찰 통해 결정 된다는 앞의 내용으로 재진술 한다면 관찰 ‘후’라고 생각 가능.

2. 아인슈타인 = 고전역학

Why?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 '양자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는 내용상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

아인슈타인: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 달을 보기 전 (= 관찰하기 전)에도 달은 존재한다.

=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27번 답 3번)

[3문단]

배타적인 상태 공존 적용 사례: 양자 컴퓨터

미시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세계에 대해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 = 양자역학의 의의

즉, 양자역학은 물체의 크기를 구분하며 (=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분류), 미시세계일 때, 배타적인 상태 공존 O

(-> 거시세계일 때, 배타적인 상태 공존 X)

[4문단]

고전논리: '참'과 '거짓'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

(-> 위의 말로 재진술 한다면, 배타적인 상태 공존 X)

=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 부여

그러나(전환)

프리스트: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 있다.

(-> 위의 말로 재진술 한다면, 배타적인 상태 공존 O)

= '거짓말쟁이 문장'

자기 지시적인 문장 vs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

1) 자기 지시적인 문장

=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

=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vs

2)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

= <>

=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에 들어갈 말은 재진술을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은 문장'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5문단]

거짓말쟁이 문장 = "이 문장은 거짓이다."

= '참인 동시에 거짓'

① 자기 지시적: 이 문장은

② 문장 자체가 거짓

1)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일 경우 → 거짓말쟁이 문장: 거짓

2)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일 경우 → 거짓말쟁이 문장: 참

=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

(- 위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미시세계와 유사한 성질을 지녔다. 정도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이 문단 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6문단]

고전 논리: '참인 동시에 거짓' 다룰 수 X

->비고전 논리: '참인 동시에 거짓' 다룰 수 O

프리스트: 비고전 논리 중 하나 LP 제시

->LP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이기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다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LP: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 성립X

고전 논리: 전진 긍정 규칙 성립

-> LP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한다면

고전 논리: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성립

=전진 긍정 규칙 성립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진 긍정 규칙은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 중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P이면 Q이다. =조건문

P=전진

Q=후진

전진 긍정 규칙: '조건문&전진이 참 →후진도 반드시 참'

LP에서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 '전진 긍정 규칙이 일반적으로 성립X. 그런데 굳이 성립하려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그러나 ~ 후진은 '거짓'이 된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전진 긍정 규칙이 LP에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 '조건문&전진이 참 or 참인 동시에 거짓→후진도 반드시 참 or 참인 동시에 거짓' 이어야.

그러나(전환)

LP에서 '조건문&전진이 참인 동시에 거짓' & '후진은 거짓'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X

(-)위의 내용으로 재진술하기 위해, 거짓말쟁이 문장 "이 문장은 거짓이다."

를 활용해봅시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 조건문

“이 문장은 거짓이다.”= 전진

참이거나 거짓이다= 후진

여기서 조건문과 전진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입니다. 하지만 후진은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내용대로 ‘이 문장’이 참이라 하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고, ‘이 문장’이 거짓이라 하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기에 후진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어야 들어가야 맞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위의 내용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비록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LP의 의의

[문제]

27.은 아까 전에 해결하고 왔기에 해설은 생략합니다.

28.을 보시면

〈보기〉

1)양자 컴퓨터=여러 개의 이진수들 단 한 번에 처리O

일반 컴퓨터=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X(by 재진술)

2)n자리 이진수:n비트 필요&2ⁿ개 존재

①:비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

②:3비트:2³개=8개 이진수 존재

양자 컴퓨터: 단 한 번에 처리

일반 컴퓨터: 8번에 걸쳐서 처리

6배가 아니라 8배여서 오답.

③한 자리 이진수=1자리 이진수, 즉 n=1:1비트 필요&2¹개=2개 존재

양자 컴퓨터: 단 한 번에 처리

일반 컴퓨터: 2번 처리

같은 게 아니라 2배여서 오답.

④네 자리 이진수=4자리 이진수, 즉 n=4:4비트 필요&2⁴=16개 존재

양자 컴퓨터: 단 한 번에 처리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모두 16개의 이진수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답.

⑤A:3비트의 양자 컴퓨터 처리 속도=8×일반 컴퓨터 처리 속도

B:6비트의 양자 컴퓨터 처리 속도=64×일반 컴퓨터 처리 속도

따라서 B=8×A여서 8배 빨라서 오답.

29.를 봅시다.

①'이 문장은'이 없어서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입니다. 오답.

②정답.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

③'이 문장은'이 있어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입니다. 오답.

④=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 부여. 오답

⑤'모든'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문장'과 같은 경우만 해당해서 오답.

ex)"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

30.을 봅시다.

㉠P이면 Q이다.

①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으로부터 조건문인 ㉠은 '참인 동시에 거짓'임을 알 수 있음.

②, ③지문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LP에서 성립하려면, '조건문&전건이 참 or 참인 동시에 거짓→후건도 반드시 참 or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하지만 '조건문&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데 후건은 거짓'이라는 반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②에서는 그 반례에 의해 Q가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③은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④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에 두 가지 진리치 중 하나가 반드시 부여됩니다. 따라서 조건문㉠과 전건P가 거짓이 아니라는 말은 그 둘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므로 후건 Q는 반드시 참입니다. 그런데 후건Q가 거짓이라 했으므로 오답입니다.

⑤ ④와 같은 논리로 후건Q가 참이 되면 맞는 선지입니다. 그런데 전건 긍정 규칙에 의해 후건Q가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므로 고전논리에서는 반드시 참을 부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1.을 봅시다. 32.는 어휘 문제라서 따로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기>

A:고전논리

B:LP&양자역학이 시사하는 바 by 프리스트

(ㄱ), (ㄴ):미시 세계

Why? 위의 내용에서 전자 크기는 미시 세계로 분류했으므로.

(ㄷ), (ㄹ):거시 세계

Why? 위의 내용에서 5cm 크기는 거시 세계로 분류했으므로.

위의 내용을 간단히 가져와 보면,

1)양자역학은 물체의 크기를 구분하며(;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분류), 미시 세계일 때, 배타적인 상태 공존O

거시세계일 때, 배타적인 상태 공존X

2)고전 역학은 물체 크기 관계X(물체의 크기 구분X), 초기 운동 상태 정확히 알면->일정 시간 후 물체 상태 정확히 측정됨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 공존X.

①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니 당연히 '참' 또는 '거짓' 중 하나를 부여할 것이므로 맞습니다.

②B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ㄱ)이 미시 세계에 해당하고, (ㄷ)이 거시 세계에 해당하므로 맞습니다.

③A와 B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나 (ㄷ), (ㄹ), 즉 거시 세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없으므로 맞습니다.

④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기에 진리치는 단 두 개, '참' 또는 '거짓', 중 하나를 반드시 (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B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ㄴ)이 미시 세계에 해당하므로,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맞는 선지입니다.

⑤A와 B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나 (ㄷ), (ㄹ), 즉 거시 세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없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

[빠른 정답]

27. ③

28. ④

29. ②

30. ⑤

31. ⑤

32. ③

참고 문헌: '홀수 인문, 사회, 예술 편'(LP지문을 철학으로 분류할 때 참고)

〈글쓴이〉

루아갈(손현동)

- 영남대 의과대학 의예과
- 명예의 전당 국어 등재
- 16 수능 국어 A형 100점(100%)
- 17 수능 국어 96점(99%)

〈검토자〉

UXO

- 명예의 전당 국어 등재
- 17 수능 국어 96점(99%)

ChoiMiru(최한용)

- 전남대 의과대학 의예과
- 명예의 전당 국어 등재
- 16 수능 국어 A형 100점
- 17 수능 국어 98점
- 18 수능 국어 98점